

# LG화학, 나노·LCD 소재 집중개발

청정연구시설 FAB 준공 ... 공정기술·인력·장비 핵심 인프라 확보

LG화학이 2월25일 대전 기술연구원에서 유기EL, 디스플레이 관련 IT 소재, 나노·바이오 소재 등 첨단 과학기술 분야에 필요한 연구장비를 갖춘 청정연구시설인 팹(FAB) 준공식을 가졌다.

LG화학의 팹(FAB) 시설은 총 400평 규모로 190여억원의 공사비를 들여 완공됐으며, 앞으로 미래 신성장을 이끌 나노, 유기EL, 디스플레이 소재 등 첨단 산업분야에 대한 연구개발이 이루어지게 된다.

또 팹(FAB)은 기존 화학연구소와 달리 건물 전체에 청정시설이 갖춰져 있어 반도체용 소재, LCD용 소재 등 클린룸 시설이 요구되던 IT 소재 분야의 연구개발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.

LG화학 기술연구원장 여종기 사장은 “팹 준공은 앞으로 LG화학을 이끌어갈 신사업 발굴에 필요한 공정의 기술, 인력, 장비 등 핵심 인프라를 확보했다는 데 큰 의미가 있다”고 밝혔다.

LG화학은 2005년까지 기술연구원 팹에 대한 지속적인 투자로 고유장비 개발을 확대하고 우수 연구인력을 확보해 기존사업 역량 강화 및 신사업 발굴을 위한 핵심 인프라 확보에 집중할 방침이다.

<Chemical Journal 2004/02/26>